

# 사회 자매결연 조사



중국 쑤저우시가전주시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.

전주시와 중국 쑤저우는 지난 10일 중국 쑤저우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쑤저우 '국제의 날-한국 테마행사'에서 향후 5년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.

지난 1996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5년째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, 관광산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아울러 청소년 교류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활발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.

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시를 대신해 천성환 주상하이총영사관 수석영사와 쑤저우 부시장이 참석했다. 시는 본 행사의 전주홍보관에 전주한지로 만든 전통공예품을 전시해 쑤저우 시민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갖고, 양 도시의 25년간 오랜 교류 역사를 회고했다.

[출처] [경희일간지] 전주 · 쑤저우 국제교류 '확대' 작성자 허경희

2 10:42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

백도인 기자

백도인 기자

기자 페이지

전주 공예품전시관

전주 공예품전시관

[연합뉴스 자료사진]



(전주=연합뉴스)  
허경희 기자 =  
전북 전주시는 '제20회  
가나자와시 전통  
공예전'을  
공예품전시관과  
교동미술관에서  
오는 14일까지  
연다고 12일

밝혔다

자매도시인 전주시와 일본의 가나자와시가 매년 번갈아 가며 여는 행사다.

이번 전시회에서는 금박공예 기법으로 만든 미니 병풍, 부채, 호리병 등 10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.

전주의 공예작가 39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.

시 관계자는 "전주의 공예와는 다른 느낌과 아름다움을 가진 가나자와시의 공예품을 즐길 수 있는 자리"라며 관심을 당부했다.